

■ 지부탐방 ■

탄탄한 재정으로 회원들에게 혜택주는

인천지부



◀ 좌로부터 나은경 간사, 유웅택 부장, 정진섭 지부장, 장무성 전무, 김영미 간사

취재 : 조진현

오랜 전통의 인천지부(지부장 정진섭)는 지부 회원 43명의 대규모 지부이다. 하지만, 인천의 대도시화로 인해 사실상 양돈농가는 소규모 10호 내외 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외지로 벗어난 회원들이 아직 인맥의 단단한 끈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전국 어느 지부보다도 더 안정되고, 조직력 있게 지부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인천지부다. 높이 솟은 빌딩과 복잡한 거리 속에서 우리 양돈인들의 맥을 곳곳이 지켜나가고 있는 인천지부를 찾아보았다.

■ 새마을 금고 운영 · OEM사료 생산

1974년에 설립되어 30여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인천지부는, 81년부터 대한양돈협회 인천

지부 '새마을 금고'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여년전부터 사료 공동생산 사업 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양돈협회 회원 및 가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 금고는 정기예금, 적금, 여신, 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맡고 있으며, 탄탄한 재정과 높은 수익률로 회원농가에 매년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사료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천지부는 다른 지부와는 달리 기존 배합사료업체에서 공동구매하지 않고 직접 사료배합비를 짜서 OEM사료를 생산하여 이용하고 있다. 총 생산량은 월 1천500톤. 사료배합비는 미국의 AF사의 권장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원료상황 등 여건에 맞게 재조정해서 활용하고 있다. 가공은 대한사료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현재 회원농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료값은 310원/kg의 저렴한 수준. 젓돈 사료, 육성돈 사료, 출하돈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배합사료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는 갓난 돼지사료 가격을 제외할 경우 실제 가격은 310원/kg 이하이다. 사료단가는 원료가격에 변동에 따라 매달 산정하여 적용한다.

정진섭 지부장은 인천지부의 OEM사료가 '사료단가' 보다는 오히려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 어느 배합사료보다 더 품질이 높은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지부장의 설명이다.

인천지부 OEM사료는 특별히 고영양으로 배합되어 있어 45일령부터 젓돈사료를 먹일 수 있으며, 90일령부터 120일령까지 육성돈 사료를 먹이고 있다. 이후 출하시까지는 출하돈 사료를 먹이게 된다.

지부단위 공동출하로 높은 지급률 받아

인천지부 회원들은 인천지역을 벗어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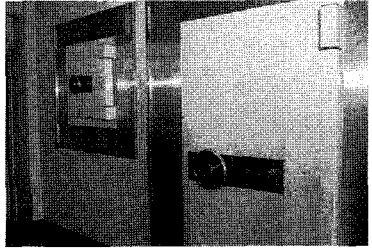
▲ 인천지부 정진섭 지부장

돈장을 경영하고 있지만, 인천지부를 통해 수돼지는 인천 삼성육가공으로, 암돼지는 삼성식품 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다. 가격이 잘 나오는 암돼지는 경매를 통해 출하하고, 가격이 안나오는 수돼지는 삼성육가공에 지부단위 계약을 통해 지육률 68%로 높은 가격에 출하하기 위해서이다.

회원농가들은 출하때마다 지부에 연락하여 출하일을 정하기만 하면, 지부에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해 준다. 돼지 판매금액은 온라인으로 송금된다. 인천지부를 통해 출하되는 돼지는 월 6,500두에 달한다.

지부는 삼성육가공과의 수시계약을 통해 높은 지급률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 회원들은 출하의 편리함과 확실한 출하처가 정해짐에 따라 안정된 사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천지부는 회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와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와 '출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위> 인천지부 전경 <우측 위> 새마을금고 간판 <우측 아래> 지부내에 있는 금고

친목단체의 성격에서 벗어난 체계적인 조직운영

오랫동안 새마을 금고 사업, 공동 출하사업, OEM 사료 생산사업 등을 추진해 온 인천지부는 특히 탄탄한 자산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

2004년 연말기준 인천지부(새마을 금고) 총 자산은 60억원. 2004년 한해 순이익만도 3억4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부에서 OEM사료 원료 구매시도 신용 '1등급'의 대우를 받고 있어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하고 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는 지부에 적립하고 대부분은 각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준다. 연간 총 몇 천만원씩에 달하는 배당금을 각 회원들이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부관리를 위해서는 조직 체계부터 달라야 한다. 인천지부는 정진섭 지부장 외에 전무 1명, 부장 1명, 출하관리(도축장) 1명, 출하기사 1명, 여직원 2명을 두고 있어 유급 직원만도 6명에 달한다.

“회원들에게 체계적이고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친목단체 개념의 지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직원들은 항상 회원에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무성 전무의 말이다.

또 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천지부가 20여 년간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부장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 자산이 크고 사업이 다양할수록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경영은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인천지부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 가장 어려운 점 “회원관리”

정진섭 지부장은 오랫동안 지부관리를 해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가장 어려운 점 또한 ‘회원관리’라고 이야기 한다.

“최근 많은 육가공공장이 있어 시세가 좋을 때 지부로 출하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돼지를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부 회원들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여러 사료회사에서 자사의 사료를 판매하고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며 “그러나 오랫동안 서로 지내온 회원들이 지부를 믿고 참여해 주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정 지부장은 말한다.

매월 이사회의를 개최하지만,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월례회의는 2개월에 한번 밖에 개최하지 못한다는 인천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회원들을 어떻게 계속 지부에 참여시킬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인천지부는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고, 더 많은 지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분뇨·악취문제 하나만이라도 집중해서 해결해야

정진섭 지부장은 올해 협회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기보다는 ‘분뇨·악취문제’ 하나만이라도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할 때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질수 있으므로 중요한 한가지, 한가지를 목표를 세워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분뇨·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로 양돈농가들에 대한 계



▲ 정진섭 지부장(가운데)은 장무성 전무(우측)와 유웅택 부장(좌측)과 지부 내부 운영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있다.



▲ 지부 사무실 뒤통에 위치한 회의장. 지부사무실이 있는 건물도 인천지부 소유다.

도, 교육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는 양돈농가들이 스스로 냄새 안나게, 적절하게 분뇨처리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진섭 지부장은 “최근 우리 협회가 업계에서 인정해 줄 만큼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협회의 발전이 우리 지부의 발전이고, 지부의 발전이 곧 나와 우리 회원들 개개인의 발전이므로, 앞으로 우리 협회가 더욱 양돈인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돈**

“3월은 양돈자조금 거출 완납의 달”